

5·18 재단 운영 교육 사이트 플래시 게임 “군인 혐오감 심는다” 논란

5·18 기념재단에서 개설·운영 중인 '5·18 민중항쟁 초·중등 교육 사이트'의 플래시 게임 등 일부 프로그램이 군인에 대한 혐오감을 물론, 그릇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알려주고 애국된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 '5·18 초·중등 교육 사이트'를 개설·운영 중이다. 이 사이트에는 오월 이야기를 포함한 오월 체험마당, 오월 자료마당, 오월 놀이마당, 오월이야기마당 등 5·18 항쟁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편향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어린 학생들의 교육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 사이트 '오월 놀이마당'에 게시된 '광주 탈출'이라는 제목의 플래시 게임은 교복을 입은 학생이 계엄군에게 쫓겨다니며 진압으로 두들겨 맞



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왼쪽> 또 '5·18 학생을 보호하라'는 제목의 플래시 게임은 시위 중인 학생들을 방패와 총으로 때려 생명을 앗아가는 계엄군을 마우스로 잡도록 유도, 군인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 특히 계엄군이 총과 방패로 학생들을 마구 내리찍는 장면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이들 게임의 경우 기획 의도나 게임과 관련한 부연 설명 등도 없이 단순히 흥미 위주로 구성돼 편향적이라는 논란도 있다.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허연



축제 개막 사흘째인 15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열린 추억의 동창회. 전남고 총동창회에 참석한 동문, 은사, 가족 등이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반갑다 친구야”

총장축제 5개 고교 '추억의 동창회' 인기

광주 도심대표 축제인 '제 6회 추억의 동창회'엔 단연 관람객이 나 참가자들의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이 있다. 축제기간 매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공원에서 열리는 '추억의 동창회'가 그것. 그동안 쉽게 한자리에서 만날 수 없었던 고교동문과 은사를 만나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이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전남여고와 전남고, 동신고, 동신여고, 광덕고 등 광주지역 5개 고교가 추억의 동창회에 참가했다.

안부를 묻거나 추억으로 남아있던 고교시절을 떠올렸다. 참가자들은 또 무려 500인분의 도시락을 함께 만들어 동문의 화합을 다지기도 했다. 앞서 14일 밤에는 전남여고 36회 졸업생이 추억의 동창회를 열었으며, 16일에는 동신고와 동신여고가, 17일에는 광덕고가 동창회를 개최했다. 동구 관계자는 “축제를 앞두고 추억의 동창회에 참가하려는 광주지역 고교 동창회의 문의가 이어졌으나 제한된 시간과 공간으로 인해 5개 학교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았다”며 “추억의 동창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많은 학교가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흑산도기상대 만족도 1위 광주지방기상청은 최하위

전국 51곳 조사

흑산도기상대가 '2009년 상반기 기상업무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중 기관별 만족도 종합결과에서 최상위를 기록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같은 조사에서 광주지방기상청은 최

하위에 머물렀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성천 의원(한나라당)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 상반기 업무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흑산도 기상대는 기상청 분청과 5개 지방기상청, 45개 기상대를 대상으로

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를 기록했다. 기상예보 서비스 ▲민원행정 서비스 ▲유관기관 서비스 ▲홍보활동 평가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뤄진 기관별 고객만족도 종합결과에서 흑산도 기상대는 총점 23.25점(만점 28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반면 광주지방기상청은 같은 조사에서 총점 20.28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행정 서비스 부문(6.71점)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9분 해질 17시 59분 달돋이 04시 17분 달질 16시 29분

야구장 갈땀 따뜻하게
차차 흐려져 밤 늦게부터 비가 시작됐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10mm.

광주	차차 흐려져 비	10/22℃
목포	차차 흐려져 비	13/22℃
여수	맑은 뒤 흐림	14/21℃
완도	차차 흐려져 비	12/23℃
구례	차차 흐려져 비	7/22℃
애남	차차 흐려져 비	8/23℃
장흥	차차 흐려져 비	8/23℃
고흥	맑은 뒤 흐림	8/22℃
순천	맑은 뒤 흐림	10/22℃
영광	차차 흐려져 비	8/22℃
진도	차차 흐려져 비	10/23℃
전주	차차 흐려져 비	9/22℃
남원	차차 흐려져 비	5/22℃
목성도	차차 흐려져 비	17/22℃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남서~서	0.5~1.0m	보통	주의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남서~서	1.5~2.5m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토)	18(일)	19(월)	20(화)	21(수)	22(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2/20	11/22	12/20	12/20	11/21	11/22

‘단풍 절정’ 지리산 24일·내장산 31일

다음 주말 지리산을 시작으로 내장산과 월출산의 단풍이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전국에 내린 비로 인해 적당한 습도가 형성된데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다음 주말인 24일에는 지리산국립공원의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시작되며 단풍이 산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하면 '절정기'로 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은 7부 능선까지 내려와 있으며 고지대의 마가목, 시달나무 등이 골고루 물든 상태이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지리산은 단풍나무, 함박꽃나무, 사삼나무 등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내장산국립공원은 현재 단풍이 진한 녹색에서 서서히 붉은빛으로 변하기 시작한 상태다. 내장산 단풍은 오는 31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영암의 명산 월출산국립공원의 단풍은 다음달 5일경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도시 분양 | **신도시 분양** |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건물 옥상 지붕 태양광발전소

일반 부자 대비 선택편리 가격 7~8배(수익성↑)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이태리가구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 신도시 분양